

한양대 의에 합격!

강남대성학원 자연 9반 김기운

안녕하세요. 올해 한양대학교 의에 합격한 자연 9반 김기운입니다.
부족한 필력이지만, 저의 강남대성에서의 재수 생활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재수를 결심한 이유와 강남대성을 선택한 이유>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보면, 저는 막연하게 의대 입시가 얼마나 힘이 드는 힘든 과정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1 초반부터 수능을 칠 때까지 무조건 오래 앉아서 많이 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잘못된 공부 습관으로 19수능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고, 실력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내 내 생기부 및 내신 준비로 엉망이 된 생활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학하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철저한 생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수업의 질이 우수한 강남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생활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점>

강남대성학원을 다니면서 고쳐야 하는 습관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암기만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강대 담임선생님께 들었던 '게으른 성실함'이라는 따끔한 지적 덕분이었습니다. 담임쌤께서는 반 전체에게 '겉으로 보기엔 매우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역 때 가졌던 습관을 고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려 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적하면서 사용하신 워딩이었지만, 저의 공부 습관을 콕 집어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는 선생님들의 풀이를 암기하거나 선지를 분석한 해설지를 암기하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미래의 내가 과외를 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능동적인 태도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 과학에서는 기출문제와 그에 녹아든 개념, 문제 풀이 논리의 경향성 등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둘째는 흐트러진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고1 때부터, 등교 시간 30분 전에 기상하고 야자때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잠을 자다가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이상한 습관이 잡혔습니다. 강남대성에서 담임선생님과 생활패턴에 대한 지적을 받고 7시 전후에 등원하고 하원 전까지는 공부시간에 숙면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이후에는 문학 작품 읽어보는 것 이외에는 일체 공부하지 않고, 일찍 잠드는 패턴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남대성 특유의(?) 자습 문화인 "6타임 중 최소 5타임" 기준을 항상 지켜서 주말 자습시간 20시간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패턴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학원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당일 수업내용과 숙제는 당일 자습시간에 모두 해결하자', '이후 남은 자습시간에 개인공부를 하자', '인강은 최대 2개만 들고, 듣는 시간은 주말에 할당하자'와 같은 스스로의 공부 규칙과 패턴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별 재수생활 학습 및 생활 노하우>

① 3월 ~ 6월

슬슬 학원 리듬에 적응이 끝날 시기입니다. 선생님들 대부분 아직 개념 수업 및 기출분석을 하시는 기간이기에 숙제가 적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한 한국사와 영어를 제외한 국수탐에서는 복습을 마치고도 내주시는 과제를 모두 쳐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남은 시간에는 강대자체 자료와 이외 심화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② 7월 ~ 9월

많은 친구들이 지치고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이자, 파이널 자료가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재수 초기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 일찍 지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대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신 과제들과 학원 자체 자료들을 분석하고 오답정리를 하는 것에 치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③ 10월 ~ 수능 전날

실전 감각 유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그에 걸맞은 선생님들의 자료가 많아질 때입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특히 집중력을 높여서, 제 공부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웠습니다. 이때는 특히 어떻게 시험을 운용할지 분 단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종이에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고 갔던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재수하게 될 후배들을 위한 조언>

일단 재수 생활 동안 치는 모의고사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력향상에만 집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험생활에서 본인이 가졌던 약점들을 모두 고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모두들 본인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